손자 사는 세상엔 불법 과외 없을 줄 알았는데 …

아이들 패륜의 길로 모는 교육현실 비판

풀꽃도 꽃이다 1, 2

조정래 지음

최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7)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조정래 작가. 그의 신작 '풀꽃도 꽃이다'(전 2권)가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출간 즉시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에 랭크되면서 조정래라는 이름의 파워와 그가 바라보는 교육문제가 새삼 회자된다.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렇다. 작가는 1970년대 후반 아들의 입대를 지켜보면서 자신이 훈련소를 떠날 때 꿈꾸던 통일이 오지 않은 것을 한탄했다. 그때 군부 정권의 불법 과외 단속을 들으면서 손자 시대엔 불법 과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손자를 맞이한 이후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온갖 사교육의 실태를 목도한다. 마침내 고등학생이 된 손자를 보면서 더 이상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작가적 당위에서 작품을 쓰게 된 것이다.

작가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3년에 걸쳐 자료조사와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찾아다녔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 현장에도 직접 찾아가 관련 종사자들을 취재했다. 철저한 자료 조사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완성된 소설은 무한 경쟁의 각축장으로 변해버린 교육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웃들이다. 무너진 공교육 체제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교사 강교민, 대기업 고위직인 남편과 어엿한 대학생 딸과 고교생 아들을 둔 전업주부 김희경, 원어민 영어 회화라는 시장에서 대어를 낚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미국인 포먼 등은 어른 세대의 가치를 대표한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부모와 갈등하는 고교생 최윤섭,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와 맞서는 중학생 한동유, 불우한 환경으로 왕따를 당하는 배동기 등은 기성세대가 구축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 시대 청소년들이다.

작가는 '단 한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의 본질을 간과한 채 아이들을 패륜의 길로 몰아가는 성공 지향적 태도와 경쟁구조를 냉정한 시각으로 들여다본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의 가치를 경직화하는가를 되묻는다.

'풀꽃도 꽃이다'라는 제목에는 길가의 잡풀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린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해냄·각권 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신의 일과 삶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무엇이 평범한 그들을 최고로 만들었을까

캐럴라인 웹 지음

톰 피터스, 다니엘 핑크, 수전 케인, 애덤 그랜트 등 세계 최고 석학들이 추천했다는 문구가 예사롭지 않다. 맥킨지 출신 일류 컨설턴트가 10년 이상 추적한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비밀을 책으로 펴냈다.

경제학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캐럴라인 웹의 '무엇이 평범한 그들을 최고로 만들었을까'는 그가 만난 글로벌 인재들의 공통점을 분석한다. 책은 2016년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인기를 끌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비상한 지능을 가지고 있을까? 언제 어디서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비범한 면모를 과시했을까? 저자에 따르면 그들은 과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에 부딪혔던 평범한 직장인들이었다.

저자는 시간과 사람 그리고 육체라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하는가에 주목한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 통제 능력이 있는데, 무엇보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루 일과 중 무언가에 휘둘리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감정을 좌우하는 힘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인다. 또한 자신의 사고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토네이도·1만5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비의 삶에 깃든 희로애락 문학으로 풀어내

나비 탐미기

우밍이 지음

'나비 탐미기' 우밍이가 동아오에서 직접 촬영한 돌담무늬나비. 〈시루 제공〉

"구구한 타협 없이 자연과 동화하는 나비의 생태, 그의 고독과 치유의 날갯짓에 관하여."

책의 맨 앞부분에 적힌 문구다. '고독과 치유의 날갯짓'이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다. 일반적으로 나비와 연상되는 말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나비 하면 아름답다, 예쁘다, 화려하다 등과 같은 형용사와 자연, 고향, 순수 등과 같은 명사가 떠올라야 맞다.

동양 사상에 관심 있는 이라면 '호접몽(胡蝶夢)'이라는 고사를 떠올릴 수도 있다. 장자(莊子)가 꿈속에서 나비가 돼 놀다가 깨서는, 자기가 나비의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자기의 꿈을 꾸었는지 분간하지 못한다. 자아와 외물이 원래 하나라는 이치를 이를 때 '호접몽'이라 한다.

기존의 나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대만 둥화대학 중국문학과 부교수이자 작가인 우밍이가 펴낸 '나비 탐미기'는 나비를 소재로 한 에세이다. 저자는 프랑스 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한 역량 있는 작가다.

책은 외견상 나비를 관찰하고 쓴 나비 도감 같지만 사실은 나비의 삶에 깃든 희로애락을 풀어낸 탐미적인 글이다. 그의 글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존 뮤어, 다이앤 애커먼 등 자신만의 철학을 견지했던 생태문학 작가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만큼 우밍이의 글은 인생과 자연, 역사와 인문에 관한 깊이와 문학적 식견이 시적으로 융합돼 있다.

모두 18편의 에세이는 나비를 매개로 한 낯선 풍경을 보여준다. 그 이면에는 인생을 관조하는 법이 드리워져 있어, 결코 가벼운 독서를 허락하지 않는다.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저자가 1997년 대학원 재학시절, 곤충전시관에서 임시해설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였다. 그곳에서 "어목에 허리가 묶인 끝분홍나비가 용화되는 과정을 처음 보았다"고 한다.

작가는 "그 끝분홍나비는 번데기에서 갓 태어난 뒤 다른 해설사에게 주무름을 당하다가 삼각형 종이 속으로 넣어졌다"며 "나비를 '작물' 삼아 사육하고 '사냥감'처럼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그들은 포켓몬 카드를 수집하듯 나비 표본을 수집했다"고 회고한다.

그럴듯해 보이는 곤충전시관이 사실은 '곤충수용소'일 뿐이었다. 왜곡되고 변형된 자연의 경이로움을 전시하는 '자연 살육의 현장'이었다. 작가는 돈에 혈안이 된 경영자들이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챙기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이다.

전시관에서 나온 그는 숱하게 죽어간 생명을 잊을 수 없었다. '나비를 부치다'는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 왕얼룩나비가 종이 사이에 끼워져 일곱 시간 동안 생사를 넘나들며 전시관으로 부쳐진 것이다. '생명 보호, 환경 복원'이라는 허울뿐인 가치 이면에는 그렇게 인간의 탐욕이 드리워져 있었다.

저자는 나비를 따라 자연과 생명, 인간에까지 인식의 날개를 확장한다. '10원짜리 호랑나비', '죽은 번데기', '어둠의 화려함', '망각의 강' 등이 탄생하게 된 연유다. 그러면서 "인간은 나비를 작물, 사냥감, 연구물로 삼을 수 있지만 친구, 연인, 타인으로 볼 수도 있고, 감상자 입장에서 감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누구든 무엇이 되기에 앞서 먼저 '인간'의 자세로 다른 생명(인간은 물론이고 다른 생물까지 모두)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논리다. 저자에게 나비는 자연에 대한 순수한 사랑 그 자체다.

"에우로페그늘나비의 사랑은 단순해 보인다. 그녀들은 비행하고 사랑하고 자식을 낳은 뒤 노쇠해 죽음에 이른다. 만약 에우로페그늘나비에게도 레테가 있다면, 그녀들이 그 강물을 들이마셔 잊고 싶은 것은 오로지 숲을 돈으로 환산하고 불태우고 벌목한 인류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에우로페그늘나비에게 숲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사랑을 잃는 것이니 말이다." 〈시루·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4대강·송전탑 … 과학의 눈으로 본 10가지 이슈

과학, 리플레이

가치를 꿈꾸는 과학교사 모임 지음

올 초부터 시작된 검찰조사로 실체가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세균을 없애려고 쓴 제품에 오히려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 있었고, 회사는 유해성을 알고도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학 선생님들이 '리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영상을 리플레이 하면서 제대로 판단하는 프로야구의 '심판 합의 판정' 제도처럼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과학으로 따져보자는 취지다. 가치를 탐구하는 과학교사모임이 펴낸 '과학 리플레이'는 세균과 항생재, 4대강, 송전탑 등 최신 10가지 이슈를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본다.

과학 이슈를 다루는 책들은 대체로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지만 이 책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에 초점을 둔다. 책은 장마다 이야기로 시작한다. 우화, 콩트, 기사 등 재미있는 방식을 취해 이해를 도왔다.

'원전이 정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의 에피소드는 주인공 스쿠루지가 후쿠시마 원전 수습 현장, 밤이 더 낮 같은 명동 거리 등을 돌아다니면서 겪는 이야기다. 〈양철북출판사·1만2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비진도·우도 … 올 여름 '섬 캠핑' 떠나볼까

섬이라니 좋잖아요

김민수 지음

"올여름, 당신은 어느 섬을 여행하고 싶습니까?"

이번 주말을 끝으로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여름 휴가는 자연 속에서 오롯이 즐기는 섬 캠핑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캠핑하기 좋은 대한민국 50개의 섬을 소개한 책 '섬이라니, 좋잖아요'가 출간됐다.

다양한 캠핑지를 소개하는 네이버블로그 '캠핑아볼타'를 운영하고 있는 저자 김민수가 국내 특색있는 섬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경관을 보여준다. 수도권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인천·안산 지역 섬을 비롯해 충청도 보령·당진, 전라도 영광·부안·신안·진도·완도·여수, 경상도 통영의 비진도와 우도, 제주도 우도 등 유명한 섬부터 비교적 덜 알려진 섬까지 다양하다.

독자들이 궁금해 할 섬에서의 즐길 것들과 트레킹 코스, 야영하기 좋은 곳을 정리해뒀으며, 캠핑과 숙박에 관한 정보들을 전화번호와 배 시간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안내한다. 섬과 선착장 근처 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맛집 정보도 빼놓지 않았다. 〈벨라루나·1만4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